



## ‘한·미FTA 전면 무효’ 양돈업 사수 결의

양돈협, 한·미 FTA 반대 전국 양돈인 총궐기대회 개최  
5,000여명 참가... 양돈업계 단일집회로는 사상 최대 규모



▲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한·미 FTA가 국내 양돈산업을 몰락시켜 식량주권을 앗아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높은 댓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 FTA 즉각 종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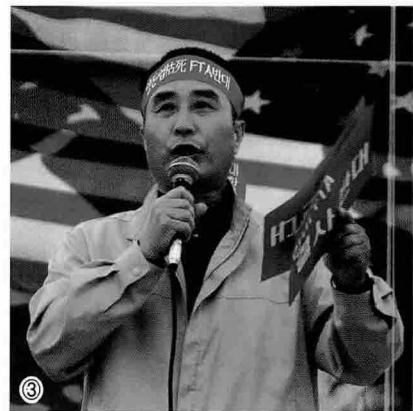
한·미FTA 타결과 정부의 양돈산업 확대에 대한 분노가 마침내 양돈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총궐기로 강력하게 폭발했다.

한·미 TA 반대 전국 양돈인 총궐기대회가 지난 5월 9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는 5천여명의 양돈인들이 운집한 가운데 FTA 전면무효 선언과 함께 국회비준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회장, 한미FTA저지



- ① (좌로부터)양돈협회 전흥우 총북도협의회장, 박창식 경남도협의회장, 최희태 부회장, 김성찬 제주도협의회장이 한·미 FTA 전면무효를 선언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외 양돈농가들도 자율적으로 삭발식에 참여해 양돈인의 의지를 표명했다.
- ② 한·미 FTA 비준반대 결의문을 낭독하는 장장길 충남도협의회장
- ③ 하태식 양돈협회 부회장이 국내 양돈산업을 말살하는 한·미 FTA 반대를 위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졸속적인 양돈업 피해산정 재평가해야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이자 식량산업으로서 양돈 산업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효자산업인데도 홀대한 것은, 양돈산업에 대한 정부의 무지와 밀실야합의 전형적인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가 당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 느낄 수 있으나, 이는 국내 양돈산업을 몰락시켜 식량주권을 앗아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높은 댓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금치 못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즉각 중단 및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집회에서 전국의 양돈인들은 한·미 FTA 체결시 연간 1조원이 넘는 양돈산업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졸속협상 타결에 이어 연



▲ 양돈협 회장단은 양돈인 결의서를 농림부를 방문, 전국 양돈인의 뜻을 전달했다.(박해상 농림부 차관에게 결의서를 전달하는 김동환 회장)

범국민운동본부 정동훈 회장,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엄성호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남호경 회장,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등 농축산관련단체장이 함께 자리해 양돈인의 의지를 뒷받침했다.

## '한·미FTA 전면 무효' 양돈업 사수 결의



▲ 전국의 양돈인들은 한·미 FTA 체결시 연간 1조원이 넘는 양돈산업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졸속협상 타결에 이어 연평균 생산감소액 축소 발표 등 양돈농가를 기만하고 철저히 무성으로 일관, 양돈산업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 국내 양돈산업을 몰락시키는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의식으로 미국대지 화형식을 거행하며, 전국 양돈인의 의지를 모았다.

평균 생산감소액 축소 발표 등 양돈농가를 기만하고 철저히 무성으로 일관, 양돈산업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 FTA 경쟁국과 경쟁할 수 있는 지원대책 보장 촉구

또한 양돈산업의 피해규모 재평가와 함께 국내

양돈산업이 해외 경쟁국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법률적 보장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내세운 세이프가드가 과연 현실에 맞는 대안이나”며 “농가들이 산수도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장난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가 FTA 전문을



▲ 이날 자리를 함께하여 한·미 FTA 반대 및 양돈 지지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이규택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왼쪽부터)



◀ 전국 양돈인들은 한·미 FTA는 양돈인의 생존권을 외면한 처사라며 생존의 벼랑길에서 양돈농민을 비롯한 전국 농민들의 불길같은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협상결과가 잘못됐다는 증거다”며 “국회의원조차도 열람할 수 없는 협상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국회 비준 저지에 농가들이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 세계 1등 돼지고기 생산 등 결의

양돈협회 장장길 충남도협의회장이 전국 양돈인을 대표해 한·미 FTA 비준반대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양돈지도자들이 함께 ▲한·미 FTA

국회비준 결사 반대 ▲FTA 추진 자체 즉각 중단 ▲의도적 피해 축소, 양돈산업 홀대하는 정부 각성 ▲양돈업 연간 1조원 피해대책 즉각 발표 ▲FTA공동대책위기구 신설 ▲양돈산업 피해규모 재평가 실시 ▲양돈업 피해 정확한 언론보도 ▲세계 일등 돼지고기, 우리 양돈인이 만들 것을 결의했다.

한편 양돈협 회장단은 양돈인 결의서를 농림부를 방문, 전국 양돈인의 뜻을 전달했다. **양돈**